강산무진도 [위상미술]		
C	B	A

A부분				
부벽준 계통	우모준	피마준	부벽준	절대준

유송년 석법	폭포옆 구멍을 뚫어 고루준을 형성	절대준과 대부벽	유송년 석법에 절대준가미	대부벽
B부분				

소부벽준	난시준(난마준)	사선방향으로 결이진 바위를 표현하는 반괴준	귀면준
B부분			

토파의 유수식 선묘	피마준과 부벽준	우모준과 피마준	절대준	반두준
C부분				

1. **구성 :** 횡권으로 비단 바탕에 수묵담채로 제작

2. **원근법**

- A : 평원시
- B : 고원시, 평원시 사용. 도르래 절벽의 상면, '태극의 주제'와 '배세의 주제' 사이의 거대한 암봉의 상면에도 많은 인물들이 모두 내려다보인다. 특히 '태극의 주제'에서는 하늘에 매달린 듯한 봉우리가 등장하여 극도의 고원시를 쓴 것으로 생각되기 쉬우나, 이 바위 구멍 사이로 의연히 평원시로 본 원경이 묘사되고 있다.
- C : 평원시

3. **준법 :** 피마준・해색준・우모준・절대준・난시준 등은 선조(線條)를 이용한 남방계의 준으로 우점준・소부벽준・대부벽준 등 북방계 준과 달라 크게 2분되며, A부터 C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쭉 전개해 가면서 제시하였다.

4. **주제 :** 첫째, **외면적인 주제는 "위대한 자연과 평화로운 인간의 삶"**으로 일반적으로 산수화는 **도가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이 주가 되고 인간은 종속적인 부주제로 이루어지나 <강산무진도>는 인간이 대자연에 순응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적극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유교적인 자연관이 반영되**었다. 즉 횡권 도입부에 등장하는 교자 탄 인물의 행렬과 그들의 목적지로 보이는 비석이 서 있는 작은 사당이 나타나며, 횡권 종결부 산길에 보이는 교자 탄 고관의 행렬 장면에서 유교의 숭선 관념과 위계 중시 관념을 상징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내면적인 주제는 "고송유수"이다. 횡권 모두의 첫 주자가 "고송(古松)"이며, 횡권 말미의 마지막 **주제가 "유수(流水)"**로 고송이 전체 횡권 중에서도 유난히 크게 그려져 주제로 다루어졌고, 횡권 마무리 부분의 유수, 곧 흐르는 강을 그리면서 강 아래 토파의 준의 형태까지도 수파묘 형태로 동조시켜 각별히 강조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5. **특징**

① 글씨가 한자도 쓰여 있지 않다.
② 도서(圖書)가 일곱 과가 찍혀 있는데 이 중 이인문의 도서는 단 하나로서 화면 끝 왼쪽 하단 구석에 있다. 이 도서는 백문방인으로 인문(印文)은 "이인문문욱도인야(李寅文文郁道人也)"이며 크기는 상당히 큰 편이다.
③ 이인문이 도서 우측에는 백문방인, "김정희인"이 있고, 그 위에는 주문방인, "자손영보"가 찍혀있다.
④ **권축으로, 지금 남아있는 조선 후기 최대의 거작**이다.

[위상미술]